



신승현

# 탄탄해진 '내외야' 단단해진 '불펜'

### 스토브리그 성적표로 본 KIA

## 이대형 보상선수로 투수 신승현 LG에 내줘 김상현·김민우 등 영입 빈틈 메워 전력 강화

KIA의 폭풍같은 스토브리그가 신승현의 이적  
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27일 LG 트윈스가 FA 이대형의 보상선수로  
투수 신승현을 지명했다. FA와 2차 드래프트를  
통해 달궈졌던 KIA의 스토브리그도 신승현의  
이적과 함께 사실상 종료됐다. 톱타자 이용규를  
놓치기는 했지만 빈틈을 알차게 채우면서 성공  
적인 스토브리그를 보냈다는 평가다.  
이번 스토브리그를 통해 이대형(외야수), 김민  
우(내야수), 김준·김상현(이상 투수)이 새 식구  
가 됐고 이용규(외야수·한화), 김성계(NC·투

수)·신승현(LG·투수)이 적어 됐다.  
약점으로 꼽히던 불펜을 안정적으로 보강했  
고, 내·외야의 빈틈에도 괜찮은 대체자원을 투입  
하게 됐다.  
이용규의 폭풍 한화행이 시작이었다. FA 시장  
에 나온 이용규는 원소속구단과의 우선 협상기  
간이 끝나자마자 67억이라는 대박을 터트리며 9  
년 간의 KIA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자 KIA가 보상선수라는 걸림돌에도 불구  
하고 LG 이대형에게 24억을 안겨주며 고향으로  
불러들었다.

시즌 초반에만 해도 KIA는 김주찬으로 경쟁  
에 불을 붙이며 막강 외야를 과시했었다. 하지만  
김주찬·김원섭·이용규의 부상, 김성현의 SK 트  
레이드 등으로 이내 외야가 황무지가 됐다. 올 시  
즌 부진이 아쉽기는 했지만 부동의 톱타자 이용  
규의 공백과 나지완의 군복무라는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이대형을 선택하면서 외야의 급한 불  
을 껐다. 공격에 물음표가 남아있지만 스피드 업  
그레이트로 이용규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2차 드래프트에서는 1군 무대에서 검증된 투  
산 투수 김상현·백선 내야수 김민우를 찍으며 불  
펜과 내야 백업 고민 해결을 위한 수를 썼다. 김  
성계가 NC로 갔지만 3라운드에서는 가능성의  
좌완 김준을 선택하면서 불펜 자원을 보강했다.  
2차 드래프트가 단기적인 선택이라는 아쉬움  
은 보상선수를 통해 만회했다.  
KIA는 이용규의 보상선수로 한화의 신인 포  
수 한승택에게 새 유니폼을 입혔다. 2년 뒤를 본  
미래의 선택이다. 한승택은 한화를 설레게 했던  
고졸 특급 포수. 좌중투를 프로 첫해를 보낸 한승

택은 포수 조련사인 유승안 감독이 기다리고 있  
는 경찰청에서의 군복무를 앞두고 있다. 2년간  
힘과 실력을 더하고 돌아온 뒤 본격적인 안방마  
님 경쟁을 하게 되는 만큼 먼 미래를 본 최고의  
선택이 됐다.  
여기에 유망주 유출을 생각했던 KIA는 이대  
형의 보상선수로 신승현을 내주면서 장기적인  
미래의 고민을 덜게 됐다. 신승현은 올 시즌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펜의 마당쇠로 활약하며 55  
경기(51.2이닝)에서 4.88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1패를 기록했다. 시즌 중반 송은범과 함께 김상  
현·진해수와와 2대2 트레이드로 광주에 왔던 신  
승현에게는 충격적인 이적이지만 암흑기의 갈림  
길에서 내년 시즌 이후까지 고민하는 KIA에게  
는 불행 중 다행이 됐다.  
KIA는 여러 고민 끝에 불펜과 내·외야를 보강  
한 만큼 트레이드 시장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겠  
다는 방침이다. 윤석민의 거취가 아직 남아있거  
는 하지만 KIA의 폭풍같은 스토브리그가 따뜻  
하게 정리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내달 10일 발표

# 황금장갑, 외야 각축전

### 3자리에 14명 후보...KIA 나지완·신종길 이름 올려



나지완 신종길

과 FA(자유계약)를 통해 SK에서 한화 유니  
폼을 갈아입은 정근우의 3과전이다. 삼성 박  
석민, LG 정성훈, 넥센 김민서, SK 최정 등  
4명은 3루수 부문을 놓고 겨룬다. 유격수 자  
리에는 삼성 김상수, LG 오지환, 넥센 강정  
호, 한화 이대수가 후보로 나선다.  
3개의 골든글러브가 걸린 외야에는 14명  
의 후보가 뜨거운 경쟁을 벌인다.  
한국시리즈 MVP 박한이와 함께 배영섭·  
최형우(이상 삼성), 김현수·민병현(이상 투  
산), 박용택(LG), 이택근(넥센), 손아섭(롯데),  
김강민(SK), 김중호·이종욱(NC), 정현  
석(한화)이 외야수 후보가 됐다. 팀의 대추  
락 속에서도 제 몫 이상을 해낸 나지완과 신  
종길도 외야수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KIA의  
자존심을 지켰다.

KIA는 앞선 MVP·신인왕·부분별 수상자  
시상식에서 수상자는 물론 후보로 단 한명  
의 선수도 내세우지 못하며 고개를 숙였다.  
두산 홍성흔, LG 이병규, NC 이호준, 한  
화 최진행은 최고의 지명타자를 놓고 경쟁  
한다.

3연패에 성공한 삼성은 가장 많은 8명의  
후보를 배출하며 활짝 웃었고, 11년 만에 가  
을 잔치를 벌인 LG에서도 7명이 골든글러  
브에 도전한다.

골든글러브 선정 투표는 내달 6일까지 올  
시즌 프로야구를 취재한 기자단과 사진기  
자, 중계를 담당한 방송사 PD, 해설위원, 아  
나운서 등 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  
된다. 수상자는 시상식 당일 현장에서 발표  
된다.

매년 KBO창립기념일(12월11일)에 열렸  
던 시상식이 올 시즌부터 12월 둘째 주 화요일  
로 옮겨지면서 2013시즌 황금장갑의 주인  
공은 오는 12월10일 탄생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7일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후보 44명을 확정 발표했다.  
골든글러브 후보는 올 시즌 출장 경기 수  
와 공격·수비 성적 등 각 포지션별 기준에  
따라 선정됐으며, 페넌트레이스 개인타이틀  
을 차지한 선수는 후보에 자동 포함됐다.  
투수 부문은 다승 공동 1위를 기록한 배영  
수(삼성)·세든(SK)과 넥센의 불펜을 굳게  
지킨 세이브왕 송승락·홀드왕 한현희, LG  
신바람을 이끈 리즈(탈삼진)·류제국(승투)  
그리고 신생팀 NC의 에이스 찰리(평균자책  
점) 등 7명이 후보다.  
85경기 이상 포수로 나와 0.230 이상의 타  
율을 기록한 이지영·진갑용(이상 삼성), 양  
의지(두산), 강민호(롯데) 등 4명은 포수 부  
문 골든글러브를 다툰다.  
1루수 부문에서는 MVP 박병호(넥센)가  
2년 연속 황금장갑을 예약해줬다. 박병호의  
경쟁자로는 출루율 1위의 김태균(한화), 0.  
280이상의 타율을 기록한 박정권(SK)과 조  
영훈(NC)이 배치됐다.  
2루수 부문은 LG 손준위(LG), 롯데 정훈



집념의 불 쟁탈전

27일(한국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옥스포드에서 열린 미국 대학스포츠협회(NCAA) 남자농구 대회에서 미시시피의 디마코 콕스(왼쪽)와 노스캐롤라이나 A&T의 제레미 언더우드가 루스 볼을 잡아채기 위해 다이빙까지 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 “하키 꿈나무들 응원합니다”

### 김영일 광주시 하키협회장 송광중에 전용버스 기증

김영일(사진 가운데) 광주시 하키협회장  
((유)한양전력 대표이사·광주시체육회 감  
사)이 최근 광주 광산구 송광중학교(교장  
김진영) 하키팀에 선수단 전용 버스(25인  
승)를 기증했다.

김 협회장은 송광중 하키팀 차량이 노후  
화해 운행이 어렵다 말을 듣고 꿈나무들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비를 털어 학교에 차량을 기증하게  
됐다.

또한 김 협회장은 10여년간 하키 발전을  
위해 매년 3000여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김 협회장은 “학교체육은 체육의 뿌리이  
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좋은 선수들이 진학  
해야만 고등부, 대학부가 발전하고 나아가



하키종목이 발전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도 지역 하키선수들이 좋은 여건에서 마음  
놓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트라이슈머® 20년은 가는데!!**  
**단열복합시트방수**

1 시공 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막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 전 시공 후

본사 전문모형 탈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자연소 녹색(Green)환경 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